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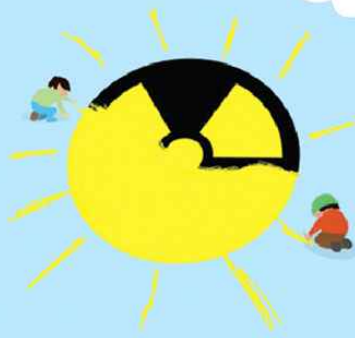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형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편측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초등생이 최태민을 묻는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그제 모교(서울모초등학교)의 후배들과 만났습니다. 후배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제 또래이니 아마 딸 아들 뺄 쫓 되는 친구들이겠지요. 이 어린이들에게 오로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사평론을 업으로 삼는다는 선생님 소개가 끝나자마자 고학년생을 중심으로 "최순실에게는 어떤 마법이 있는가"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돼 있고, 거리마다 집집마다 박근혜-최순실이 화제가 된 세태의 단면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은 2학년이 던진 질문을 통해 판단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못난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둥기로 얻어맞아도 이정도 충격일까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먹먹한 마음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데모 잘하기로 유명한 대학이 근방에 있어서 시위만 벌여지면 최루탄 가스가 온 동네를 뒤덮던 제 초등학교 시절(1981~1986)이 생각났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고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않기도 했던 친구들에게 한 번은 제가 "최루탄 가스 때문에 짜증난다. 왜 저 대학생 형들은 데모를 해서……."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형들이 다 뜻이 있어서겠지"라며, 동네 지리를 모르는 외지에서 온 신입생 형들에게 개구멍을 알려주고 백골단을 피할 수 있게 해줬다는 무용담 아닌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별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정의롭고 반듯한 조국을 보여줘야 했을 우리 어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요. 말은 그렇다 해도 실상이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승리하는 게 정의인 세상이라면 우리는 후대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훗날 기회주의의 노예로 크도록 방치하는 셈이니까요.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라." 민족 선각자 장준하 선생의 유지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를 흔들 유일하고 강력한 변수는 '오늘 광화문에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12토① | "'박근혜 7시간' 집무실 아닌 자기 방에 있었다"

[오프닝] 단원고 2-7 이민우 군·2-1반 유미지 양 아버지 말씀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정호성 '박근혜 7시간' 진술하다…'집무실 아닌 관저에 있었다'
- 박근혜와 만난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 9000명분 프로포폴 구입
- 심리학자 김태형 "박근혜 이용해먹은 새누리가 앞장서 차 타도할 것"
- 예상대로 우병우 후대전화 깨끗이 지운 듯…검찰, 박근혜 소환키로
- 열차, 버스 등나…오늘 서울도심은 말 그대로 '범국민 집회'될 듯
- [최동석 칼럼]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 시민혁명에 의한 계층구조의 해체
- [김프로이드] 김프로 전 SBS기자
- 서서히 얼굴색 바꾸는 KBS·MBC…뭔가 공작 냄새 나는 엘시티 수사

■ 1112토② | [관훈나이트클럽] 조선, "최태민과 동거" 지운 이유

[출연] 민동기 미디어평론가,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김용민 PD

세월호 진실의 문이 열릴까

국민일보 프로포폴 무려 9000명분 구입

세월호는 여전히 물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진실은 인양되는 것 같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가 1년에 9000명분의 프로포폴을 구입했다고 한다. 우유주사 용도로도 최대 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1년 영업일을 200일로 보면 하루 진료용으로는 최대 45명, 우유주사용으로는 10명이 쓸 수 있다. 개인 의원인데 이 정도면 엄청난 양인 것이다.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많이 썼던 게 아니다. 2016년 이 병원 원장이 박근혜 남미 순방에 동행하자 프로포폴 구매량을 두 배로 늘였다고 한다. 누구 위해 이렇게 많이 구비했을까?

경향신문 정호성 “세월호 당일 관저에 있었다”

청와대는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 집무를 봤다고 한다. 문제는 박근혜가 참사 당일 청와대 집무실에 있었는지, 관저에 있었는지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거 중요하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상 집무를 봤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여간 박근혜가 대통령인 상황에서는 그 7시간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문고리 권력 3인방 정호성이 그 7시간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 가서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이 1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박근혜가 그 때 관저에 있었다고 했다. 집무실이 아닌 관저라고 한 것이다. 관저는 말하자면 자고 먹고 씻는 사적 공간이다. 재택 집무를 봤다는 거다. 사실 피부시술을 받았거나, 굶을 했다거나, 밀회를 즐겼다는 설이 분분했지. 밀회를 즐겼다고 이야기한 일본 기자는 된통 당했고. 정호성 말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시각에 왜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와서는 구명조끼 타령을 하면서 영똥한 소리를 했는지 답을 들어야 한다. 확실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시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내놓았어야 할 죄를 지은 것이다.

박근혜의 종말

한겨레 차 이용해 먹은 與가 앞장서 차 칠 것

오늘 토요일 한겨레에는 박근혜의 심리를 분석하는 기획이 있는데. 황상민, 김태형 이 두 심리학자다. 두 사람은 박근혜의 심리를 정확하게 짚어낸 분석가로 통한다. 우선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의 발언을 인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뒤에서 사리사욕을 챙겼던 최순실과 새누리당이 무능한 박 대통령보다 더 나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지지울 반등이 없고 시민들의 하야 요구가 거세지면 아마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박 대통령 하야와 사법처리를 주장할 겁니다.”

다음은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의 코멘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쉽냐’ ‘어렵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세월호와 최순실 게이트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 변화의 물줄기를 잘 이끌어 주는 사람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광장에서 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리드하는 지도자를 대중은 원한다는 말로 들린다.

혹시 검찰 역시 검찰

東亞日報 국민 눈치 뵈나..박근혜 소환키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별도의 장소가 아닌,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에 부를 방침이라는 것이다. 서면조사, 방문조사로는 국민들 분노를 다독일 길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박근혜 조사는 최순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9일 안에 한다는 방침인데, 이르면 일주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포토라인에 서울까요? 물론 현직 대통령이니 경호는 삼엄하겠지만.

朝鮮日報 우병우 전화기 뒤지니 강통 상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했다. 그런데 검찰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강통 전화기였다"라고 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가 삭제하더라도 통화내역은 물론 문자메시지, 영상·사진,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대부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전화기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거의 예상된 결과라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던 지 114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었으니까. 우병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자료들을 그대로 놔뒀을 리가 있겠냐는 거다. 우병우 라인으로 채워진 검사가 수사하는 우병우 수사, 국민 기만도 적당히 해야 한다.

노종면 김용민 정상근 국민TV 11.12 생중계
2016 총궐기를 맞이 하.야
11월 12일(토) 오후 1:30~ <http://onair.kukmin.tv>

광인정권 요지경 백태

경향신문 전 靑 관계자 “수용소 다녀온 듯”

“박근혜의 청와대는 ‘비선 놀이터’였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눈길을 끈다. 전 청와대 관계자 A씨. “수용소에 있다 온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둔 것 같다”면서 “월급만 받았다”고 말했다. 계통도 없고 비선이 좌지우지하는 일이 비밀비재했다는 건데, 이리다보니 공식 조직은 잘 굴러가지 않았겠지? 이 관계자는 “수석이나 비서관들이나 다 헛바지였다”며 “아무리 회의를 해도 하나 마나였다. (논의 방향이) 하루아침에 뒤집혔다”고 말했다. “공조직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외부의 누군가 도움으로 굴러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한겨레 린다 김에 흘러 엉터리 무기 도입했나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방산비리다. 오늘 한겨레에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방산 비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판왕’?” 이란 제목의 기사 일부 소개한다. “박근혜는 주요 국방 문제에 대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의견을 교환했다. 린다 김은 언론인이던 필자에게 박근혜를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김종대 의원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시중에는 그 땐 린다 김이 최순실과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도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린다 김의 역할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도 사실이다. 린다 김 스스로도 김종대 의원에게 “록히드마틴의 일을 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전투기 도입은 아니라도 사드 요격미사일 배치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린다 김이 박근혜에게 조언을 제공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간 군사 안보 문제와 관련해 공식기구의 논의는 배척되고 모든 의사결정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결정돼왔다. 이제 퍼즐이 완성되고 있다.”

세계일보 정윤희 문건 파동은 결국 사실

2014년 11월 세계일보 ‘정윤희 문건’ 보도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일 전 경위. 어제 한일 전 경위가 “최경락 경위에게 뒤집어씌우면 불기소하겠다는 회유를 들었다”고 밝힌 내용, 전해드렸지? 한일 전 경위는 회유당하지 않고 거절했다. 그러자 이튿날 한일 전 경위는 긴급 체포됐다. 최경락 전 경위도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윤희 문건에는 문고리들이 청와대 문서를 산더미같이 들고 나가서 정윤희에게 보여줬다는 거지? 그리고 국정을 협의했고, 당시 검찰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던가?

미국 그리고 한국

서울신문 미국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로 몸살

미국 이야기 좀 할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불붙은 반(反)트럼프 시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시작된 시위가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의 50여 도시로 확산됐다. 시위에 고교생이 참여하고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과격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수에 밀려 패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 같으면 대선 불복이냐며 비난 받을 텐데 미국은 다르네. 심지어 뉴욕,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연방에서 독립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트럼프 당선으로 누가 덕 보나

트럼프가 당선까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성 주류 정치권과 기득권층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반감,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음 대선, 한국의 표심을 전망하는 좋은 척도가 될 것 같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한국도 보수·진보를 떠나 기성 정치에 대한 아웃사이드들의 반감이 굉장히 크다”면서도 “트럼프를 통한 분노는 타자에 대한 분노나 반이민적 분노인데, 한국은 가진 자나 재벌 기득권에 대한 분노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현상, 비정치인 반기문에 대한 지지에 대해 ‘급진적 언행’으로 주목받아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급부상하는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기존 대선 잠룡들이 근본적인 혁신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오늘은 온 국민 뭉치는 날

朝鮮日報 서울 오는 교통수단 모두 동나



이미 전국 각지의 전세버스가 동났고, 서울행 KTX 표는 특실 등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 거의 매진됐다. 버스나 기차 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